

## 『기록관리시스템의 투자대비효과(ROI)분석방법』

- 임진희(2006), 한국국가기록연구원 이슈페이퍼 1 -

이 연 창\*

“그렇게 뒤돌아보며 갈 시간 없습니다.”

이야기 끝에 그 분께 들은 한마디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내로라하는 어느 기업의 고위 임원께 몇 년 전 기록관리에 대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 분께서는 앞만 보며 달려가기도 벅찬 치열한 국제경쟁시대에 뒤나 돌아보며 갈 시간 없다는 냉정한 현실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기록관리가 어떠한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것인지를 설명하지 못하고, 당위성만 말하는 저 또한 병어리 냉가슴이었습니다. 그 갑갑증을 풀어주는 책을 만났습니다.

‘기록관리? 그냥 창고에 잘 쌓아두면 되는 거 아닌가?’ 정도로 생각하는 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기록관리 과정에서 생기는 여

---

\* (주)한국문헌정보기술 대표이사

러 복잡한 사정을 설명하면 그 필요성을 이해하지만 기록관리는 돈 쓰는 일이고 이익창출의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기록관리는 투자만 있고 회수는 없는, 그러므로 하면 좋고 안 해도 크게 상관없는 일로 생각합니다.

기록관리는 기록이 생산되는 업무과정부터 밀접한 관계를 갖고 업무과정의 생산성 혁신과 기록관리의 혁신은 뗄 수 없는 관계이며, 기록관리를 통해서 어떤 이익이 생기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면, 기록관리의 지평을 비약적으로 넓힐 수 있을 것입니다.

임진희-이미영 님의 “기록관리시스템의 투자대비효과(ROI)분석방법”은 기록관리시스템 도입을 위한 비용과 성과의 분별 방법을 설명한 국내 첫 시도라 할 수 있습니다. ROI(Return On Investment) 분석방법을 통해서 시스템 도입을 위해 투입되는 비용의 종류, 시스템 도입 후 산출될 실질적인 성과의 분별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록관리시스템 도입을 위한 비용은 크게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구입 및 유지보수비, 인건비, 컨설팅비, 교육훈련비 등으로 프로젝트와 직접 관련되어있는 비용들입니다. 시스템 도입 후 이익은 직접적인 수익으로 사무용품 절감비, 인건비절감비 등과 시간절약, 생산성 향상 등의 간접적인 이익입니다.

ROI분석을 통해서 투입비용의 세부 항목을 점검하여 프로젝트의 위험요소를 미리 예측하고 달성목표효과를 구체적으로 설정함으로써 기록관리 업무의 핵심성과지표를 도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책에서는 원론적인 해설만이 아니라, 기록관리시스템 도입에 의한 실제의 ROI 외국사례들을 실음으로써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4가지의 각기 다른 사례에서 시스템 도입배경이나 달성 효과의 여러 가지 측면을 살펴 볼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에서 놀란 점 하나는, 투입비용의 가장 큰 몫이 인건비라는 점입니다. 어떤 사례는 무려 전체 투입비용 89%가 인건비라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현실을 생각했습니다. 외국산 하드웨어와 데이터베이스 구입비용 중심으로 비용을 인식하고 노동력 비용을 크게 인정하지 않는 우리의 현실은 개선되어야 합니다.

책에도 언급되어 있듯이, 눈에 보이는 정량적 효과를 넘어 정성적인 효과의 분석방법에 대한 방법들이 더 연구되어야겠습니다. 앞으로 공공 및 민간분야에 기록관리시스템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프로젝트의 목표설정과정부터 ROI방법이 시도되고 종료 후의 성과에 대해서도 다양하게 연구, 조사된다면 이 책으로 시작한 기록관리시스템 ROI 분석 연구도 더욱 깊고 넓어지리라 생각합니다.

이 책의 다른 매력 하나는 얇다는 점입니다. 좀 거리가 되는 곳이면 아침저녁 하루 출퇴근길 전철에서 독과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루 출퇴근길 투자해서 새로운 문제인식의 지평을 넓힐 수 있다면, ROI가 꽤나 높은 것 아닌가 싶습니다.

몇 년 전에 만났던 그 분께 그 때 빙어리 냉가슴이었었노라 편지 한 장 쓰고 이 책을 보내드려야겠습니다.